

“ 도마 앞에 선 그리스도의 겹혀 ”

■ 이종윤 원로목사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 자신을 계시하신다. 이것은 실로 위대한 그의 겹혀로서,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손으로 만지게까지 허락하셨다. 그러나 보다 위대한 겹혀는 그러한 개방과 접촉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동시에 사라져 자신을 감춘 겹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적인 부활이 그를 보지 못한 우리에게도 주어지게 된다. 직접 감각적인 경험에 대한 평가는 부활하신 주를 우리가 보다 실제적이며 참되게 접근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두 갈래의 마음을 가진 디두모(쌍둥이)라는 별명을 가진 도마는 “우리가 부활하신 주를 보았다”는 제자들의 증언을 들었고 “빈무덤을 보았다”는 사실과 “천사도 빈무덤을 선언했다고 전했다”고 한다. 또한 부활하신 주가 무서워 떨며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한 여인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사실도 들었다. 우리가 별반 다름이 없는 도마는 주님의 부활을 들었을 따름이다. 그는 “내가 그를 보면 믿으리라”가 아니라 “내가 그를 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고 말하였다. 다른 사람들이 “주를 보았다”고 선언했지만 도마는 그를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도마는 믿음이 적은 자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자였다. 또한 그는 불확실하고 애매하게 여겼을 뿐 아니라, 회의적이고 낙망적인 고집에 사로잡혀 있었다. 다른 사람이 부활의 주를 보았다면 도마는 볼 뿐만 아니라 만져 보아야만 했고 가장 조잡한 촉감으로 도마는 만족하려 한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것으로써 완전한 성취로 간주할 수 없기 때문에 부활하신 손을 누가 보았다면 그는 창으로 찢린 몸까지 보고 만져 보기를 원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도마의 표현이 예수에 대한 반항으로 생각지 말자. 그는 부활의 사실을 용납하기 보다는, 자기의 생각을 정당화하고 타인의 증언을 그릇되게 간주한 자세에 있다. “그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완고할 뿐 아니라 불경건하고 굴욕적인 태도를 취한 것이다.”(칼빈)

도마와 같은 인간을 찾아오신 것은 부활하신 주님의 근거없는 근거라 아니할 수 없다. 도전적인 도마에게 주님은 “평안할지어다” 문안하시면서 이 평화를 도마에게 잇기를 회구했을 뿐 아니라 실제 이 평화를 그에게 가져온 것이다. 그리고 항거하지 말고 은사를 받고, 요구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신다. 부활의 주는 한 죄인의 완고한 요청 앞에 굴복하여 비천한 죽음의 종으로 밑바닥까지 내려오시어 원수를 친구로, 부정을 고백으로, 불신앙을 신앙으로 전환시킨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주”라고 한 고백은 부활하신 주를 향한 고백이었다. 도마의 자기 포기기는 주님께 대한 애모와 감사로 나타났다. “나를 위한 주요, 나의 주요, 나의 형제이며, 하나님이니이다.” 그리스도는 도마의 이 말을 자신의 권고로 신앙고백으로 전환시키시고 너는 나를 보고 믿지만, 실은 그리스도 자신이 계시하시고 말씀하심으로 고백할 수 있었다. 부활하신 주가 도마에게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면서 보고 믿은 도마를 민망히 여기셨다. 진정한 신앙은 부활의 주를 보지 못했으나 믿는데 있다. 부활의 주를 보는 것이 유리한 잇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메시지를 듣고 믿는데 잇점이 있다. 빈 무덤을 들여다보기보다, 무덤이 비었다는 메시지를 듣고 믿는 것에 잇점이 있다. 우리는 의심하나 여전히 믿는다. 낙망과 실망 가운데 처해 있지만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있다. 모든 근심이 사라지고 기쁨의 완전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거기서 울고 있는 어리석은 즉 완고한 상태에 머물러 주님의 삶과 죽음을 통하여, 그의 품에 안겨 있음을 의심하는 어리석음 속에 살고 있다.

뒷면으로 계속 ➡

앞면에서 계속

부활의 주님이 의심 많은 도마를 찾아오신 이상의 위대한 겹혀는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나타나신 그 겹혀한 태도에서 계시된다. 우리 모두 누구나 믿음으로 초대되어 있는 것은 주님의 겹혀하신 행위에서 기인된 것임을 고백케 한 것이다.

-한국장로신문 [제1639호] 2019년 4월 27일 발매-

English Worship Service	
[Room 802, 11:20 am]	[Preacher : Rev. Euichang Kim, PhD] [Presider : Deacon Kichan Yoo]
* Call to Worship	John 4:24 Presider
* The Apostles' Creed	Congregation
* Doxology	1 Congregation
Congregational Prayer	Deacon Dong Woo Park
Hymn	2 Congregation
Scripture Reading	1 Cor 3:1-9 Presider
Welcome/Fellowship	Congregation
Offering	Congregation
* Offering Hymn	50 Congregation
* Offering Prayer	Rev. Euichang Kim
Anthem	Congregation
Sermon	“Infants in Christ” Rev. Euichang Kim
* Hymn	210 Congregation
* Benediction	Preacher
* Lord's Prayer Song	635 Congregation
(* Please stand if you are available)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우리의 비전 (vision)</p>	<p>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p> <p>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p> <p>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p>	<p style="font-size: small;">서울교회 QR코드</p>
---	--	--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교육전도사 김은숙 박미라	협동목사 김의창 심우진 전재홍
선 교 사 강아급주하나,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혜경,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스프로토바로이, 조남혜, (방글라데시), 이재훈박병진(캄보디아), 전호진(미얀마), 조병연김희경, 우상식김경옥, 이삭, 비스타파. 사지, 예녹(인도), 정상찬홍성임(필리핀),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김용진황경혜(말리위), 김영호서향경(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오정녀(케냐), 김중일백순미(타이노동자), 필리핀, 프로산토, 수레시, 수브산, 이경엽, 알로르, 비스누보도, 보디소프, 린룸, 수란존(방글라데시), 박영성, 김태식, 윤영모, 이금순, 김영일(군선교)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이종윤 Emeritus Pastor Lee Jong-Yun, Ph. D., D.D., D. D.
	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www.iseoulchurch.or.kr/

“ 영광의 몸 ”

■ 고후 5:1-4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고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말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영원한 집은 죽음 후 하늘에 있는 영원한 몸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3절의 옷을 입고, 벗는다 함의 진정한 의미는 옷이 아닌 집을 의미합니다.

1. 장막집을 덧입는다는 의미
 창세기에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므로 에덴동산에서 쫓겨날 때(창 3:1), 하나님은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히시고 쫓아내셨다 했습니다. 유대인 랍비들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 빛으로 된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들이 범죄하므로 빛으로 된 옷을 잃어버림에 따라, 하나님께서 가죽으로 된 옷을 지어 입혀주신 것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빛의 옷을 입고 있었다’ 라는 말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 라는 뜻입니다. 가죽옷은 죽음이 지배하는 몸이 입는 옷입니다. 이는 죽어서, 썩어짐으로 없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인간에게 있어서 구원은 무엇일까요? 구원은 이 가죽옷을 벗어버리고, 옛 아담이 입고 있던 그 빛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 썩어 없어질 육체를 벗어버리고, 영광으로 빛나는 몸을 입고 우리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부활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인 것입니다

2. 부활할 때는 어떤 몸을 입게 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부활 후의 어떤 몸을 입게 되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높은 산, 곧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옷이 하얗게 빛났다고 했습니다.(막 9:3) 여기서 ‘예수님의 옷에서 광채가 났다’ 함은 ‘옷에서 빛을 발했다’ 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강력한 빛이 나왔는데, 그 빛이 너무 강력해서 옷을 뚫고 나왔다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옷은 빛처럼 희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마 17:2)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이 원래부터 하늘에 속하신 분이셨고, 하늘의 빛나는 존재이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장차 우리들이 부활하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떤 상태, 어떤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인지를 예시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빛나는 몸과 같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입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미래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실 때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몸, 하늘로부터 올 영원한 몸을 우리가 입게 될 것을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빌 3:21, 갈 3:27)

맺는 말
 우리가 부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영광의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입었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고전 15:54).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는 이사야서 25장 8절의 ‘사망을 영원히 삼키실 것이다’ 를 인용한 것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죽음 자체를 폐지할 날이 곧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죽음 자체도 폐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성도들을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미래의 부활 때에 예수그리스도의 빛나는 영광의 존재로 다시 살아날 것을 믿으시며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주 김철홍 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찬 양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I 오전 9시	서명철 목사	안인호 장로
II 오전 11시 20분	장석남 목사	송인권 장로
III 오후 2시	조원영 목사	인 도 자

오후 5시 .인도, 설교: 조원영 목사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예의 부름 Call to Worship ...시 19:7-8...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3(2).....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11(시 17)...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1(1) ... 다 함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321(351)...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마 4:1-11...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께
 봉 헌 Offering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634(70) ...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설 교 Sermon“시험과 시련”... 이승구 목사
 * 찬 송 Hymn337(363)...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김양언박수강김복희2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인도, 설교: 조원영 목사

기 도 박종숙 권사
 성 경 삼하 1:1-16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네 파가 네 때로 돌아갈지이다" ... 설 교 자
 * 주기도송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김양언박수강김복희2
 설 교 조원영 목사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헌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부	가브리엘	백경화	박준호	박승기	윤주일	가브리엘		
II부	할렐루야	류충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핸드벨	송재월	
III부	임마누엘	유태왕	김윤지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임범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오늘 찬양예배는 케냐 김낙형·오정녀 선교사가 지도하는 아마니콰이어 합창단이 준비한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영어예배	예루살렘				특 별 찬 양			
수요 I부								
수요 II부	은 빛	박래경	김윤지	홍혜란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11시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교 회 소 식

◆ 모 임

- 임시당회 - 5월1일(수) 오후 8시20분 104호
- 진중세례식 - 4일(토) 육군 제3보병사단 신병교육대 오전 7시 교회 출발(철원)
- 가브리엘 찬양대 연습 / 4일(토) 오후 3시 101호

◆ 알 림

- 101호 예배 및 부서 모임
중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 신앙강좌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 602호 부서 모임
청년2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 주일 오전 10시-11시, 오후 1시-2시 / 청년1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609호
에바다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30분
-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706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802호 예배
영어예배부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902호
디아스포라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
- 금주 수요일예배는 오후 7시, 101호에서 한 번 드립니다.
- 의료 상담 / 이번주 상담은 정현구(치과), 노선균(홍부외과) 입니다. 주일 오전 10시10분-오전11시까지 다음주 상담은 김병배(통증의학), 박동우(영상의학), 김관섭(영상의학) 입니다.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의료 상담을 합니다. ※ 전화 예약 010-2728-5939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p>앞면에서 계속</p> <p>13. 상담 안내 / 법률, 세무, 가정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 (310호) ※ 전화 예약 010-2376-3892</p> <p>14. 오늘 주일설교를 은혜롭게 해 주신 합신대 이승구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p> <p>◆ 결 혼</p> <p>1. 조규석 군(조관현 성도, 이미영 집사의 장남)과 추유미 양(3교구 추석우 집사, 박정애 집사의 장녀) / 5월4일(토) 오후 3시 더 그랜드 힐 컨벤션 3층 그랜드볼룸(6964-7889) / 2호선 삼성역 1번 출구 셔틀버스 운행</p>
--

지 난 주 출 석 현 황				
주일1,2,3부	찬양예배	교회학교	주일예배 합계	수요예배
951명	323명	190명	1,464명	147명

수입, 지출 내역보고(4/21)			(단위 : ₩)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4월 21일	헌 금	55,429,650	
	특별예배비		856,806
	찬양운영비		80,000
	선 교 비		300,000
	행사비		442,500
	구 제 비		400,000
	비전2020		3,880,000
	출 판 비		250,000
	지원교회		500,000
	복리후생비		221,800
	통 신 비		822,040
	수도광열비		167,730
	차량유지비		1,994,100
	도서인쇄비		51,000
	소모품비		49,950
	잡 비		47,660
	환경유지비		71,800
	수선유지비		367,000
	식당운영비		683,940
	합 계	55,429,650	11,186,326